

성인학습자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 유형화에 관한 질적 연구

김미정 · 이정희 · 안영식[†]
(동의대학교)

A Qualitative Study on Adult Learners' Learning Experience Typology in Humanities & General Education

Mi-Jeong KIM · Jung-Hee LEE · Young-Sik AHN[†]
(Dong-Eu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dult learners' experience by studying Humanities & General Education and get to know types and characteristics by classifying their learning experiences. This study uses grounded theory method which is suitable to investigate subjective experiences. In this study, data is collected from 13 adult learners by using Focus Group Interview(FGI) who participate in learning experience of Humanities & General Education of D university in Busan region. The data is categorized by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based on data analysis method of grounded theory and analysis processes.

This study provides several outcomes as follows: 113 concepts, 38 subcategories and 16 upper categories are derived through the process of abbreviation and categorization of learning experience of Humanities & General Education. In a process of learning experience, this study shows interrelationship in a frame of paradigm and derives results of a process of abbreviation and categorization casual condition, contextual condition, phenomenon and interaction(help/obstruction factor).

Tree types of learning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are drawn as follows: 1) "Self-realization" is the type who participate in Humanities & General Education with desire of learning and they want to find identity and plan detailed future. 2) "The pursuit of happiness" has less desire on learning than "self-realization" and they are types who participate in Humanities & General Education because of someone else's help and suggestion. 3) "Local community" is the type who participate in Humanities & General Education because they feel necessity of social role and they expect local development based on their interest in local community. Several conclusions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for further studies.

Key words : Adult learner, Humanities & General Education, Typology, Learning experience

[†] Corresponding author : 051-890-2184, ays@deu.ac.kr

* 이 논문은 연구자들이 한국연구재단의 시민인문강좌에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제1저자 김미정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축약한 것임.

I. 서론

2006년 ‘인문학 위기 선언’ 이후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 해결,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 해소, 가치관의 혼란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인문학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체성 함양을 위한 방안으로 2007년 5월 인문학 살리기 정책인 ‘인문한국(Humanities Korea)’을 발표했다(우기동, 2008). 이후 제도권 내 인문학의 학문적 연구지원과 더불어 제도권 밖 인문학 대중화에도 힘을 보탰다. 2009년 한국연구재단이 출범하여 ‘시민인문강좌’와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인문주간’과 같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지방자치단체들도 복지측면에서 ‘희망의 인문학’과 같은 인문학습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대중인문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그 후 인문교육은 시민대중과 ‘무엇을 함께 학습’해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영주, 2012). 이처럼 우리사회는 인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학술적으로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인문교양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 안에서 점차 줄어드는 교양교육과 인문학 전공학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과는 대조적으로, 대학 밖에서 인문교양교육은 지역사회기관 등을 통해 점차 확산되어 2010년 17,162개에서 2011년 18,838개로 증가되어(교육과학기술부, 2011) 대학 강단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인문학의 교육실천들이 학교 밖,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박재술 외, 2007).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된 노숙자, 여성, 저소득층 등을 위한 인문교육에서부터 재계의 최고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교양교육에 이르기 까지 최근에는 대학과 지역주민이 직접 만나는 인문교양교육이 늘어가고 있다(양은아, 2009).

그러나 뒤돌아보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인문

교양교육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미 문화센터, 시민단체 등에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어낸 초급 인문교양교육들이 다수 존재해 왔으며, 비직업교육 영역 대부분이 많은 적든 인문교양교육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또한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조 1항에는 평생교육의 영역을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인문교양교육은 평생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역영으로서 실제로 이전의 성인교육과 사회교육 분야에서도 성인인문학습은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였다(양은아, 2009).

이렇듯 인문교양교육은 이제 학교교육을 넘어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확장되고 있다. 평생교육단계에서 인문교육의 대중화에 관한 논의는 사회가 학교교육만을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간주하던 협의의 교육으로는 급변하는 세계에 적응해 나가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이명준, 2000). 또한 인문학이 평생교육과 만나 일반 성인들의 생활 속에서 제공되면 인문학의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의 육성을 통한 총체적 사회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기도 하다(홍덕률, 2002). 따라서 인문교양교육은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성인들에게 점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 영역에서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증가에 따라 인문교양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인문학의 학문적 성격상 경쟁성과 배제성을 내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학습자의 인문교양교육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인문교양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은 노숙인,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 참여자 등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김말란, 2012; 김의태, 2011) 그들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을 단순히 관찰자의 견해에서 단편적으로 제시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성인학습자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

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성인학습자는 왜 인문교양교육을 학습하는가?”라고 하는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성인학습자들은 인문교양교육 학습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학습경험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는 어떠한 학습경험을 하고 있는가?

둘째,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셋째,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 유형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에서 나타난 학습의 결과는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개인적 자질 뿐만 아니라 능력과 활동의 유용한 자원이 된다(김한별, 2009). 성인학습자의 직접적인 학습과정 또는 내면의 경험을 통해 익힌 학습경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지식의 변형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풍부한 학습자원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인들은 자아정체성을 완성한다(한우식, 2011; 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9). 이렇듯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은 성인기의 삶에 핵심요소로 생각되어 왔으며, 학습경험이 개인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고려할 때,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설명과 분석이 필요하다(김향식,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은 성인학습자들이 인문교양교육을 통해 획득한 경험을 성찰과정을 거쳐 새로운 시각과 지식으로 학습하는 경험의 과정을 의미한다.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을 분석하고, 학습자들의 학습경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향식(2010)은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이 평생학습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고등교육과정의 학습경험을 가진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본질을 찾고, 그 본질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의 본질은 학습행위를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자기도움(self-help)으로 직관되었으며, 이러한 본질을 형성하는 의미 구조로 자기도움에 대한 학습인식, 자기도움의 학습구성을 위한 상호작용, 자기도움의 학습에 따른 변화의 과정을 도출하였다.

서숙영(2008)은 시민대학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성인학습자들이 문해교육 학습과정을 통해 자신의 학습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인학습자들에게 문해교육 학습경험은 평생학습자로서의 성장 욕구 발견, 새로운 세상과의 소통,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 인식, 심리적 자신감의 회복으로 나타났다.

민선향(2006)은 성인학습자의 주관적 경험을 통한 배움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학위과정에 참여한 성인들의 주관적 경험을 토대로 나타난 배움의 의미를 해석한 결과 성인학습자에게 배움이란 배울만한 가치가 있음을 지각했을 때 배움의 욕구가 시작되며, 삶의 경험이 학습활동 경험과 상호 연관되어 의미화 되었을 때 배움의 의미가 드러났다. 또한 성인학습자들에게 배움은 지속적인 과정을 통한 깨달음이며 그 결과 삶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학습자들의 학습경험을 탐색하고, 그들의 학습경험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정희 외(2007)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만학도

를 대상으로 그들이 어떠한 대학생활을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고, 만학도의 대학생활 경험유형을 자기실현형, 전문성 향상형, 대학생활 만족형으로 분류하였다. 박연하(2006)는 30, 40대 중년여성들의 평생학습경험 및 학습과정을 탐색하고, 학습경험을 분석하여 유형화 하였다. 중년여성의 학습경험을 자아 만족형, 지식 추구형, 자아 발전형, 자아 혼돈형으로 유형화 하였다.

이처럼 평생교육 맥락에서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경험을 탐색하고 학습경험을 유형화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성인학습자들의 학습경험 유형은 그들이 어떤 학습을 경험하였는가에 따라 다르게 유형화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인학습자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의 다양한 영역 중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들의 학습경험을 분석하고, 유형화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들의 학습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경험을 유형화 하였다.

2.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 결과 유형

인문교양교육에 관한 연구 중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을 중심으로 내용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김말란(2012)은 인문학교육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인문학교실 참여는 자활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정서적 고립의 완화에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요인의 변화로 자활참여자의 대인관계 특히, 만족감, 민감성, 이해성, 친근감, 의사소통, 개방성, 신뢰감 등을 향상시켰으며, 접근회피 스타일, 개인적 통제, 문제해결능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영주(2012)는 대중 인문교양강좌 현황과 사례연구를 통해 인문교양강좌 참여자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았다. 참여자들은 5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이들은 인문교양교육을 통해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성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생활태도의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김의태(2011)는 비형식 인문교양교육 참여 노숙인의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노숙인을 능동적 성인학습자로 인식하였으며 이들은 인문학과정에 학습을 통해 인간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주체성을 회복하였으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인학습자들은 관계를 성찰하고 상실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인식했다.

김보성(2010)은 인문학 중심 문화예술교육이 노숙인의 재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노숙인들은 내적통제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었으며,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가 문화예술교육과정 이수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양은아(2010)는 삶과 학습의 선순환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문학학습경험에 대한 생애사적 분석을 통해 성인학습자들에게 인문학학습과정은 삶의 국면에서 자신에게 던져진 상황에 실존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이며, 삶의 위기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문학은 삶의 문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긴장과 대화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극복하는 노정에서 발견되는 삶의 의미와 이해이며,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자기철학적 토대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윤형주(2010)는 빈곤지역 중년여성의 인문학 학습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기쁨인문대학 참여 학습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판적 문화기술지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기쁨인문대학 학생들은 1년 동안의 인문학 학습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했다고 하였다.

양은아(2009)는 대중인문학교실 참여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경험적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문적 사유가 인간의 내면의 성찰뿐 아니라 삶의 양식과 지평을 의미 있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진정한 인문학에는 순환적 사이클이 존재하며, 이러한 순환과정 속에서 성인인문학은 의미생성과 학습과정의 특이성을 획득해 나간다고 하였다.

윤용택 외(2008)는 '제주희망대학 인문학 과정'의 사례분석을 통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인문학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일상생활에 바빠서 현재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없던 대중들도 인문학을 접하게 되면서 사회를 보는 맑은 눈과 밝은 귀, 불의를 보면 외칠 수 있는 입을 가진 주체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등 삶의 태도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성인학습자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윤나래(2010)는 여성희망학교의 실천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부들은 돌봄 노동을 주로 수행하던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치유하는 기회를 가졌고, 삶에 근거한 경험을 토대로 지식을 더욱 잘 이해하고 습득하였으며, 습득한 지식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실질적인 도움과 만족을 얻었다. 획득한 지식은 다른 주부들과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주부로서 살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과 연대감을 느끼고 지지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주부들은 실천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문제 뿐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곧 지역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이는 지역 활동의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학습자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의 유형을 <Table 1>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Learning Experience of Humanities & General Education

	Learning Experience	Researcher
Attitude Change of Individual Life	Change of Life Attitude	Lee, Y.J (2012)
	Improvement of Self-reliance	Kim, B.S (2010)
	Understanding of Life Meaning	Yang, E.A (2010)
	Change of Life Pattern	Yang, E.A (2009)
	Attitude Change of Life	Yun, Y.T (2008)
Relationship Change with Others	Improvement of Human Relations	Kim, M.R (2012)
	Relationship Reflection with Others based on Positive Experience	Kim, E.T (2011)
Possibility of Regional Activity	Regional Activity	Yun, N.R (2010)

인문교양교육 관련 연구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은 인문교양교육은 성인 학습자에게 인문학적 교양을 제공하고, 개인의 자아를 찾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학습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박찬영, 2008).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을 분류해 본 결과 인문교양교육의 참여는 성인학습자들에게 단순히 인문학적 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 변화, 타인과의 관계 변화,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이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까지 나아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성인학습자들은 인문교양교육을 통해 다양한 학습경험을 하고 있으므로 성인학습자들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에는 어떠한 유형과 특성이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 선정은 심도 있는 정보 수집을 위해 기본적으로 중요한 단계로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부산지역 D대학 인문교양교육에 학습경험이 있는 성인학습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D대학 인문교양교육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진행된 시민인문강좌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총6개월 동안 매주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는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이 있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특성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Sex	Age	Job	Family
A	Female	63	House wife	Husband, Son
B	Female	56	House wife	Husband, Son, Daughter
C	Female	60	House wife	Husband, Son, Daughter
D	Female	60	Business	Husband, Son
E	Male	71	Business	Wife
F	Male	64	No Job	Wife
G	Male	58	Business	Wife
H	Female	56	House wife	Husband
I	Female	60	House wife	Children
J	Female	52	House wife	Husband, Daughter
K	Female	52	No Job	Son
L	Male	65	No Job	Wife, Son
M	Male	66	No Job	Wife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13명으로 여성 8명, 남성 5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52세에서 71세, 평균 60세 정도로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주부였으며, 남성들도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무직 상태였다. 또한 미

혼인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거나, 자녀들이 일이나 결혼 등으로 떠난 경우 부부만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다수를 이루었다.

이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연구자가 참여자들과 함께 D대학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성인학습자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에 관한 현상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에 관한 유형화를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정보제공자의 통찰력에 근거한 가설을 일반화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집단의 상호작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Morgan, 1998). 따라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을 공유한 성인들을 통해 보다 유용한 자료를 도출해 내는데 적합하다고 사료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자는 질문을 미리 계획하고, 연구 목적에 적합한 토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핵심질문을 구성하였으며, 핵심질문은 개방형으로 구성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부산지역 D대학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이 있는 성인학습자를 중심으로 비확률 표집 방법 중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13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연구목적에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인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와의 협의를 통해 2012년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와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인문교양교육의 학습경험을 탐색할 수 있는 면담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미리 준비한 비구조화된 질문지에 맞추어 질문하고 답을 얻는 형식을 취하였다. 비구조화된 질문지는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외에 인문교양교육 수강경로, 학습경험 등과 같은 질문들로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수집된 녹음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들으면서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Strauss & Corbin(2001)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과정을 거쳐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합하여 이론적으로 갖는 의미를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해 자료수집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마다 모형을 발전시켰다.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삼각 검증법을 사용하여 전문가들과 지속적 검증을 거쳐 이론의 통합과 정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총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포커스 그룹 1팀(A, B, C, D)은 여성, 2팀(E, F, G)은 남성으로 각 각 구성하여 동질성을 높였으며, 3팀(H, I, J, K, L, M)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이 있는 성인 학습자 13명을 대상으로 미리 구성된 비구조화된 질문지와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가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자신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고 핵심질문을 미리 제공하여 인터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문제와 관련된 질문은 성인학습 관련 전문가들에게 타당성을 검증받았으며, 질문에 대해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

여자의 진술 중 애매한 용어나 개인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다시 질문 하였다. 팀 별 인터뷰 시간은 1~2시간이었으며, 질적연구의 수행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많은 질문을 하기 보다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 중심으로 그들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전체 내용을 녹음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을 해석하는 것으로, 경험은 양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것이며, 학습자와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탐색하는데 적합한 방법인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 중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개발해나가는 Strauss & Corbin(2001)의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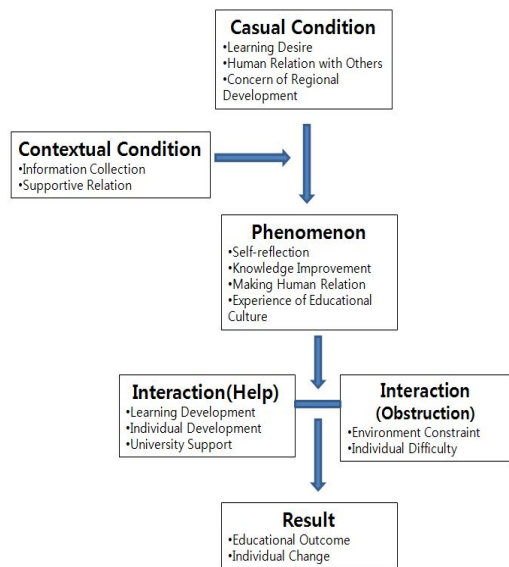
자료 분석은 전사자료, 질문지, 면접노트 등을 바탕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사자료는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기록하고자 노력하였다.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은 후 영역을 분류하고 개념을 추출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과정에 따라 중심개념 파악 및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세 단계의 코딩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질문하기와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간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분석하였으며, 검증절차는 각 단계에서 진행되었다. 개방코딩 단계에서 범주를 개발하고, 축코딩 과정에서 범주 연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자료를 다시 살핌으로써, 의문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증거들을 찾아 자료를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 범주화 과정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과 관련된 개념과 범주를 밝히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개방코딩 과정을 통해 문장 속에 내포된 개념을 도출하였다. 개념 중 유사 개념을 범주화시키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범주로 명명해 나갔다. 개념의 명명은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연구자가 문맥을 함축하는 낱말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범주화 과정에서 전문가 2인과의 검증 작업을 통해 원 자료의 의미를 살리는 표현으로 명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113개의 개념, 38개의 하위범주, 16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의 과정은 학습경험의 범주 과정에서 해체되고 분해되었던 원 자료를 재조합하여 개방코딩에서 생겨난 범주들을 패러다임이라는 틀에 맞게 연결시키는 과정이다(유기웅 외, 2012). 축코딩은 [Fig. 1]과 같이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현상, 상호작용(도움요인/방해요인), 결과로 도출되었다.



[Fig. 1] Learning Experience Model of Humanities & General Education for Adult Learner

현상을 일으키거나 발전시키는 사건 및 일들로 구성되는 인과적 조건은 '학습에 대한 열망', '타인과의 인간관계',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의 하위 범주가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배움에 대한 욕구와 인문학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통해 공부에 대한 열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주제를 통해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욕구가 있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하는 강좌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사는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인문교양교육 참여의 동기로 작용하였다.

성인학습자가 인문교양교육에 참여 할 수 있게 된 맥락적 조건은 '정보수집', '지식적 관계'로 범주화 하였다. 학습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인문교양교육의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맥락적 조건이 있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는 다양한 홍보매체와 타인의 소개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타 프로그램 참여는 인문교양교육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인문교양교육 참여라는 현상이 일어났다.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을 통해 이루어진 현상은 인문교양교육 참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기내면과의 만남', '지식향상', '인간관계형성', '교육문화 경험'으로 범주화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문교양교육 학습을 통해 자신의 삶과 내면과 만나게 되고, 인문학적, 전문적, 지역정보 등 다양한 교육내용의 습득을 통해 지식의 향상을 경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수자, 학우들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학생회, 동아리 활동, 학위수여식 등을 통해 동경하고 있었던 교육문화를 경험하였다.

성인학습자가 인문교양교육 참여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다양한 상호작용 요인이 탐색되었는데 도움요인으로는 '학습촉진', '개인개발', '대학지원'으로 범주화 하였다. 우호적 학습분위기와 다양한 교수방법은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습 활용 가능성 인식

과 개인의 학업의지는 학습자의 학습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강좌에 대한 재정적·물리적 지원은 강좌참여의 도움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연구 참여자의 인문교양교육 참여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환경적 제약', '개인차원의 어려움'으로 범주화 하였다. 날씨의 변화나 좌석배치의 불편함은 인문교양교육 참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성인학습자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부족이나 일과 가사활동의 병행 등은 참여의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통한 결과는 '교육의 성과'와 '개인의 변화'로 범주화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문교양교육 학습을 통해 인문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변하였다. 또한 교육내용의 생활 적용, 인간관계 개선, 지역사회활동 참여 등 다양한 교육의 성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자아성찰을 통해 사고와 행동이 변화하고 나아가 향후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긍정적 결과를 보였다.

2.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 유형과 특성분석

가.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 유형

본 연구는 핵심범주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된 16개 범주들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연결하여 유형을 분석하였다.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 유형을 성인학습자들의 인과적 상황인 인문교양교육 참여 동기, 현상인 인문교육 경험내용, 학습자 자신의 변화라는 결과 중에서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 차별화되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을 <Table 3>과 같이 자기실현형은 학습에 대한 열망, 행복추구형은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형은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유형을 분석하였다.

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 유형별 특성

1) 자기실현형

자기실현형은 학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한 후 자기내면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의 습득을 통해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스스로 인문교양교육의 정보를 획득하고, 적극적 자세로 참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었다.

<Table 3> Learning Experience Type of Humanities & General Education for Adult Learner

	Categorization	Self-realization	Pursuit of Happiness	Local Community
Casual Condition	Learning Desire	◎	○	○
	Human Relation with Others	△	-	○
	Concern of Regional Development	-	-	◎
Contextual Condition	Information Collection	◎	△	○
	Supportive Relation	○	○	-
Phenomenon	Self-reflection	◎	○	△
	Knowledge Improvement	◎	○	○
	Making Human Relation	○	◎	△
	Experience of Educational Culture	-	◎	△
Interaction (Help Factor)	Learning Development	○	△	○
	Individual Development	◎	○	◎
	University Support	△	○	△
Interaction (Obstruction Factor)	Environment Constraint	-	◎	-
	Individual Difficulty	△	○	△
Result	Educational	○	◎	○

	Outcome Individual Change	◎	◎	○
Participants		B, I, J, K	A, C, G, H, L, M	D, E, F

Strength : ◎ Very Strong, ○ Strong,
△ Moderate, - Weak

“제가 잘하는 게 없어서 아직도 일을 못 찾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 무료 강의만 찾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너무 관찮을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정말 잊히지 않는 게 낫을 많이 가려서 옛날 같으면 내가 안 되면 포기할 건데 되는 방법이 없을까하는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전화해서 나 이리이러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꼭 참여시켜 달라고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K1)

“제가 무식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책만 봐도 가슴이 뛰고요. 성격테스트나 성격에 대해서 알았다라면 제가 이번까지도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한방에서 건강을 알았다라면 그것을 두세 번씩 죽으려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공부했다라면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을 거니까 이것을 보면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탁 나오는 거예요.” (K2)

“D대학교에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들으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깐 인문학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플랜카드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인문학 강의를 받으면서 내 자신안의 내면적인 것도 찾아내고, 또 이때까지 몇 십 년 동안 묵었던 선생님들의 지식도 내가 흡수하고” (B6)

“아... 나 라는 존재가 이렇게 귀할 수도 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나를 귀하게... 나를 이때까지는 엄마, 아내, 며느리, 동서, 친구, 동생 이라고 했는데 나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B8)

인문교육이 직업교육과 같이 전문적 직업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진 교수자들의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학습을 통해 성공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문교양교육 참여 도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해 반해 타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의 강의 시간 중복이라는 어려움은 연구 참여자가 인문교양교육 참여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시간적 방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문교양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스스로 방해요인을 대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교수님이 저한테는 하늘같아요.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한분, 한분 다 틀리잖아요. 교수님의 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각 교수님의 좋았던 것들을 모아서 제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교수님의 주제가 다 틀려서 그게 좋았어요. 지금 미래가 두렵지 않은 게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K7)

“제가 요리를 배우고 다니고 있는데요. 아침 9시에 가서 3시 반에 마치면 제가 택시를 타고 여기 왔었죠. 요리만 해도 힘들어서 쓰러질 판인데 나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허겁지겁 택시를 타고 오는 거예요. 너무 지치니까 택시를 타고 여기 왔어요. 그 정도로 오고 싶고 한 시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 (K9)

다양한 도움요인과 방해요인 속에서 연구 참여자는 인문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 삶의 방향을 설계하였다.

“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겪었거든요.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제 자식도 가난하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중략) 그래서 나중에 빈민구제를 통해 불쌍한 사람을 돕고 나처럼 힘든 사람하고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싶어요.” (K21)

“인문학강의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게 아니라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경제적인 것도 조금 더 재투자를 하고 해서 2~3년 내에는, 학생부터 60대 까지 와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싼값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봉사활동도 해야겠다는... 그전에는 막연했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2층에는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림전시 할 수 있는 문화공간하고, 3층에는 집 지어서 옥상에는 텃밭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B23)

2) 행복추구형

행복추구형은 삶의 행복을 위해 학습에 대한 열망은 어느 정도 있지만 스스로 행동하기 보다는 타인의 도움이나 권유로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교

육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사고와 행동이 변한 학습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가족, 이웃 등 타인을 통해 인문교양교육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개인의 만족, 삶의 질 향상과 같이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참여하였다.

“저는 내 자신의 만족, 또 저는 항상 배움을 좋아하고, 항상 듣는 걸 참 좋아 해요. 저는 자신의 삶의 질을 좀 더 보람 있게 앞으로 자신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A6)

“아내가 구청 갔다 오면서 신문을 봤다고 하더라고 신문을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고 접수시켰다고 하더라고. 접수시켰으니깐 다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서 입학식 때 와서 보니까 와보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분도 계시고 동년배분도 계시더라고요. 한번 해봐야지 싶더라고...” (L3)

이들은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수자, 학우들과 긍정적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문화의 경험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학우들이 다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거기서 또 더욱더 행복감을 느꼈어요.” (A6)

“60이 넘으면 배움은 목적이 아니고 즐기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우기도 하지만 어울리고 즐기는 과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A18)

“액자에 졸업장까지 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까지 기대 안했거든요. 학사모를 쓴다는 게 너무 너무 좋았어요.” (A19)

“강의를 받으러 와서 여러 많은 분들을 같이 만나서 즐길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우선적으로 저에게는 좋았고, 항상 내 사업상으로 만나는 분들은 개개인으로 있었지만...(중략) 그러나 다정다감하게 만날 수 있던 분들이 약 40명 정도가 6개월 동안 지낸 게 저는 상당히 보람 났습니다.” (G5)

연구 참여자들은 인문교양교육 참여 초기 학습에 대한 열망이 크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수자들의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한 우호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은 이들을 동기화 시켰다. 또한 이러한 배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이들의 학습을 지속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성인학습자로서 직장 및 가정에서의 일과 학습병행으로 인한 시간 부족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참여 방해요인들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000교수님 강의 재미있게 참 잘 들었어요. 유머도 하시면서 잘 하시더라고요.” (A26)

“아무사업도 안하고, 회사도 안다니고, 모든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이런 강의를 받으면 부담을 안 느끼는데 개인사업을 하면서 여기 강의를 받으러 오게 되었다는 거죠.” (G8)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강의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자영업을 조절을 하면서 저는 참여를 했어요.” (G6)

직장과 가정,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친구, 가족 등 주변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여 주었다. 또한 자아성찰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고자 노력하며 배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 강의를 받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폭을 넓혀서 우선 상대방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겠고, 배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G7)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내 자신을 많이 반성을 하고, 내 생활이 강의를 통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마인드 자체도 옛날과 지금 보다는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발전되지 않았나. 상당히 그런 쪽에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G8)

3) 지역공동체형

지역공동체형은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에 가장 큰 동기를 가지고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한 유형이다. 이들은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이라는 사회적 역할에 따른 필요성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이 지역문제 해결, 지역의 발전 등에 기여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다. 주로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인문교양교육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지역발전과 관련 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인문교양교육 학습을 통해 다양한 인문학적 내용을 습득하게 되

었으나, 이들은 지역과 관련된 교육내용의 습득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

“○○동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인데 동구청에서 알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1)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다 보니깐 많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구성원 중에는 대학교수님도 계십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이걸 하는 동안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또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고 왔습니다.” (E2)

“제가 ○○동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소개 받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F1)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습득된 학습내용이 지역 활동과 지역문제 해결에 적용 가능하다는 인식은 연구 참여자들이 인문교양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데 도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생업과 사회적 역할의 수행으로 인한 시간 부족은 이들의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방해요인은 인문교양교육 참여의 지속을 위해 생업을 조절하는 등 적극적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 이야기는 참 와 닿는...(중략) 사회적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성공사례 제시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협동 및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하는데 큰 도움을 하는 그 강의는 우리 전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을 한번 받았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E4)

“사회적기업도 제가 보니깐 요즘 국민들이 일자리 창출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쉽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F2)

“그냥 저는 평생 몇 십 년을 장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가게 문 닫는 걸 정말 안했었는데 인문학 강좌를 들으니깐 강좌시간에는 문 닫고 와요.” (D2)

본질적으로 인문교육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양적인 성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학문이 아니므로, 지역공동체형에게 인문교양교육 학습은 그들

이 기대했던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발전 등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인문교양교육 학습을 통해 습득된 교육내용은 이들에게 현대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학 강좌를 배우면서 무한경쟁에서 나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6)

“6개월 동안 다니면서 무언가를 꼭 알고 가야겠다는 것보다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사회가 이런 변화를 가지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F5)

“강의 듣고 난 뒤에는 내 생각 내 관점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넓은 세상에 이렇게 많은걸 아는 사람한테 많이 배우다 보니깐 인간사회정보를 많이 얻었다는 그것입니다.” (F7)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는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경험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근거이론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개방코딩과 축코딩 단계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의 개념과 범주를 탐색하였으며, 선택코딩 단계를 통해 학습경험 유형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인과적 조건은 성인학습자들의 인문교양교육 참여 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습에 대한 열망, 타인과의 인간관계,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이해준 외(2003)에 따르면 성인학습자들이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새로운 정보·지식을 얻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문화교양을 쌓기 위해’, ‘자녀교육에 도움을 얻기 위해’, ‘교육받는 것이 즐거워서’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반면 ‘자격증이나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이나 ‘사람을 만

나는 것이 좋아서' 참여한다는 비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성인들이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로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었으며, 반면 여가 활용, 자녀 교육 활용, 진로 및 취업 등 실용적인 항목에 대한 응답은 아주 낮았다고 하였다(박재술 외, 2007).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은 최근 인문교양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내적 변화에만 참여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문교양교육은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기초체력을 다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박상옥 외, 2011)는 연구 결과처럼 학습에 대한 관심 이외에도 타인과의 소통, 삶과 직업세계에 적응을 위한 방안으로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함을 알 수 있다.

인문교양교육 참여동기와 함께 정보수집, 지지적 관계와 같은 맥락적 조건들은 인문교양교육 참여에 도움이 되었다.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정보의 부족이나 학습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인문교양교육의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박재술 외(2007)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문교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좌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인문주간 운영, SNS, 블로그,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에 노력하고 있었다(한국연구재단·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2). 내면적으로 인문교양교육 참여 동기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더 많은 성인 학습자들이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성인학습자들은 인문교양교육 학습을 통해 자기내면과의 만남, 인문학적 내용 이외에도 전문적, 지역적 내용의 지식이 향상 되었으며, 교수자 및 학습자들과 다양한 관계의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교육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교양교

육은 성인학습자들에게 인문학적 교양을 제공하고, 개인의 자아를 찾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학습이라는 일반적 견해(박찬영, 2008) 이외에도, 성인학습자에게 인문학적 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 변화, 타인과의 관계 변화, 지역 활동 참여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 분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김말란, 2012; 김의태, 2011; 양은아, 2010; 이영주, 2012). 이러한 현상은 경험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문교양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성인학습자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 상호작용 요인 중 학습촉진, 개인개발, 대학지원은 도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도움요인들은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시킴으로써 더욱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반면 인문교양교육 참여에 제약을 주는 방해요인으로 환경적 제약, 개인차원의 어려움이 탐색되었다. 김의태(2011)는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하는 노숙인들에게 공부와 경제활동의 병행은 갈등의 문제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갈등 속에서 경제활동과 공부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을 한 학습자도 있었지만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학습참여 기간 동안 끊임없이 갈등의 요소로 작용 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모든 성인학습자들에게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므로 그들에게 공부와 생업의 병행은 인문교양교육 참여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학습자들은 환경적, 개인적 차원의 방해요소들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인문교양교육 참여 과정에 더욱 몰입하고 있었다.

넷째, 성인학습자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자기실현형, 행복추구형, 지역공동체형 3가지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유형 분류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개인의 삶의 태도 변화, 타인과의 관계 변화, 지역 활동 가능성 모

색으로 나타났던 성인학습자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 분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유형별로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에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정도는 달랐지만,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은 모든 유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유형들의 특징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면, 자기실현형은 학습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은 가장 낮은 유형이다. 반면 지역공동체형은 자기실현형에 비해 학습에 대한 열망은 낮은 수준이지만,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유형이다. 두 유형은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등 개인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의 결과는 학습에 대한 열정에 비례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습에 대한 열망이 높은 사람은 학습관련 정보를 스스로 획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 하였으며, 그들은 인문교양교육 학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습을 통해 자신을 위한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설계하였다. 반면 학습에 대한 열망 보다는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한 지역공동체형은 인문교양교육의 활용 가능성을 인식함으로써 학습을 지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인문교양교육은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개인의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자기실현형과 같이 미래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는 못하였다.

행복추구형은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습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친구나 이웃 등의 소개로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유형이다. 이들은 인문교양교육 참여 초기 타인과의 인간관계와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학습을

하는 동안 그들은 교수자, 학우들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교육문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고와 행동에도 유연성을 가지는 등 개인의 변화도 가장 크게 경험한 유형이다.

이렇듯 성인학습자들은 유형에 따라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 경험의 정도가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하나의 주제에 문학·사학·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구성된 기초적 수준의 강좌 내용이 아닌, 학습자들의 삶과 연관된 다양한 인문교양교육 강좌의 개발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고 심화된 인문교양교육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이영주, 2012).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인문교양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인문교양교육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하거나, 인문학이 엘리트 중심의 학문이라는 편견 때문에 인문교양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이 있다. 학습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홍보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교육 참여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인문교양교육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인문교양교육 참여동기 및 경험의 정도가 다양하다. 따라서 인문교양교육 강좌 내용은 학습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실제 삶과 연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교육의 참여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또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이 아닌 유형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인문교양교육의 참여가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문교양교육 참여 후 후속활동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심화강좌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학습자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단계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주체가 된 학습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강좌 종료 후에도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인문학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성인학습자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밝힘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문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Reference

- Han, W. S.(2011). A study on the learning experience process and persistent factors of participating elderly in study circle, Ph.D.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in Korean).
- Hong, D. R.(2002). Social education strategy for the improving of humanities knowledge, Humanities policy research book, 22, (in Korean).
- Kim, E. T.(2011). A study on learning of the homeless who participated in non-formal humanities learning program : Focusing on the case of 'St. Francis humanities course',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n).
- Kim, H. B.(2009). The meaning of social capital for informal learning of school teachers, *Andragogy Today* 12(3), 27~45, (in Korean).
- Kim, H. S.(201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adult learners' learning experiences, Ph.D.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in Korean).
- Kim, M. R.(2011). The effect of humanities education on emotional factors, social factors and empowerment of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 Ph.D.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in Korean).
- Korea Research Foundation &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2012). Excellent case presentation and lecture workshop report of citizen humanities lecture support project, (in Korean).
- Lee, H. J. et al(2003). Status Analysis and policy of humanities education for the level of lifelong education, Center for Humanities and Society, (in Korean).
- Lee, J. H. & Ahn, Y.S.(2007).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campus life for adult learner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3(3), 89~116, (in Korean).
- Lee, M. J.(2000). Philosophical base and meaning of humanities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Andragogy Today* 3(3), 127~152, (in Korean).
- Lee, Y. J.(2012). Status and case study of public humanities and general education lecture, Masters' Paper,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Korean).
- Merriam, S. B. · Caffarella, R. S. · Baumgartner, L. M. · Ki, Y. H. · Hong, S. H., Cho, Y. J. & Kim, S. J. Interpretation(2009). Adult learning, Seoul Academy Press.
- Ministry of Education and Technology(2011). Research result of national lifelong education statistic, Report of Nov. 22, 2011,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Technology, (in Korean).
- Min, S. H.(2006). A study on adult erudition in a degree program, Ph.D. Dissertation, Yeonsei University, (in Korean).
- Morgan, D. L.(1998).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Park, C. Y.(2008). Humanity policy for contributing humanities welfare, Humanity policy research books, (in Korean).
- Park, J. S. · Han, S. H. & Cho, J. H.(2007). A survey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humanities lecture progra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 Korean).
- Park, S. O. & Choi, N. S.(2011). A study on educational needs for north Korean migrants' stable professional life: The necessity of approach to humanities education, *Andragogy Today* 14(2), 107~135, (in Korean).
- Park, Y. H.(2006). A study on the learning patterns of middle-aged women in the life context, Ph.D. Dissertation, Danguk

- University, (in Korean).
- Seo, S. Y.(2008). Case study of participation of literacy education of adult learners, Ph.D. Dissertation, Aju University, (in Korean).
- Strauss, A. L. · Corbin, J. M. & Shin, K.R. Interpretation(2001). The Step of ground theory, Seoul: Hyunmoon Press.
- Woo, G. D.(2008). The practical humanities and the philosophy of life, Humanities Studies, Kyunghee University 14, 229-260, (in Korean).
- Yang, E. A.(2009). A study on the mutually interlinked experience structure between life-enhancing and learning-promotion in the context of practical humanities learning,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n).
- Yang, E. A.(2010). Why “humanities learning”:
The process and consequence of adult humanities learning and its literacy acquisitio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5(4), 35~74, (in Korean).
- Yu, K. U. · Chung, J. W. · Kim, Y.S. & Kim, H. B.(2012).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Parkyoungsa, (in Korean).
- Yun, H. J.(2010). A critical ethnography on humanities learning of mid-life women in urban poor legion, Masters’ Paper, Yeonsei University, (in Korean).
-
- 논문접수일 : 2013년 01월 28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04월 18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20일